

# 미국 대학의 학사 구조와 교육 개혁

김성복

뉴욕 주립대(SUNY-Albany) 사학과 교수



## 1. 다시 강화된 교양 강좌

한국의 대학 교육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대학에서 교양강좌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학 교양강좌의 취지와 내용은 국가와

### 세계 주요 대학의 변화와 동향

1. 도쿄 대학의 대학원 중점화와 학부교육 개혁
2. 미국 대학의 학사 구조와 교육 개혁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적어도 1960년까지 미국 대

학의 교양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창조적 지식을 체득하고, 생산적인 기술을 배우며,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이념과 전공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웅변, 지리, 역사, 문학, 자연과학, 수학 등이 중요한 교양 과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교양강좌

◇... 이 글은 1998년 5월 11일 서울대학교의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 등 3개 대학이 공동 주최한 “미국 대학의 학사 구조와 교육 개혁”이란 제하의 특별 초청 강연회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연사이자 필자인 김성복 교수는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사학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 1987년부터 1995년까지 동 대학의 학장, 부총장을 역임하면서 그 대학의 학사 구조 개혁을 주도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의 전반적인 학사 구조에도 정통한 학자이다. 편집자 ...◇

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20년 동안 미국을 휩쓸었던 신좌익과 관련된 문화혁명 또는 신문화운동의 영향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에 따라 '우등생 프로그램'(honors program)이 파괴되었고 학점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이 A와 B학점을 받고, C학점은 격감하였으며 낙제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 전체의 대학 교육 수준이 저하되었다.

이러한 신문화운동은 '60년대 당시 미국 외에 중국과 프랑스 등을 휩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이의 주도자는 영국의 시인 윌리엄 버러, 앨런 퀸즈버그, 티모시 리어리 등과 시카고 세븐, 버클리 무브먼트, 위스컨신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의 뉴 레프트 등이다. 이 시기에 많은 신진 학자들이 기존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역사관과 세계관을 창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통, 구세대, 권위, 존경, 규제, 자본주의, 기업, 역사에 대한 불신을 주장했다. 이들에 의하면 기존의 역사란 '창백한' 백인 남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유럽의 문명만을 찬양하는 것이므로, 이제까지의 미국사 책은 모두 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여자와 흑인, 인디언 등 미국 역사의 그늘에 살던 사람들을 역사의 중심적 지위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국 대학에서의 교양강좌는 당시의 문화혁명 취지와 반대되는 것으로 치부되어 모두 없어지고, 심지어 전공과 부전공까지 무시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문화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기존 교육과정을 전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다. 이들이 기대하고 성취하고자 했던 것은 '현실관련성'(pro-relevance)이다. 즉, 자신의 즉각적인 욕구와 필요에 무관한 학문은 배척하

여 셰익스피어, 갈릴레이, 베토벤, 뉴턴이 무시되는 상황이 되었다. 오늘 당장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소비자만을 위하는 방향으로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미국 대학에서의 교양강좌는 소멸되었다.

그 결과 1900년 이래 '미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문해 능력이 뛰어나다'고 많은 교육 지도자들이 인정했던 자부심은 사라지고, 198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문자해독력은 세계 45위로 하락했다. '60, '70년대의 문화혁명이 이러한 현상을 유발한 직접적인 요인이다.

1979년에 이르러 하버드 대학과 카네기 위원회에서 신문화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이 제기되었다. 즉, 미국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교육가, 문헌가, 사상가들이 모여 심각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미국 교육의 파오와 결점을 지적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 보고서에 입각하여 1981년 하버드 대학에서는 종전의 교양강좌를 강화·쇄신한 핵심강좌(코어 커리큘럼)를 재구성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도덕적 사고, 통계적 사고, 글쓰기(영어), 제1외국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중에서 몇 과목을 반드시 선택하여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핵심강좌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미국 전역의 거의 모든 대학이 교양강좌를 부활시키고 자유방임주의를 청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유독 아이비 리그의 한 대학만이 여전히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강좌를 선택하고 학점을 따도록 하고 있는데, 브라운 대학이 바로 그 대학이다.

미국 대학의 교양강좌에는 핵심강좌나 영역별 필수강좌(distribution requirement)

등이 있는데, 대학의 종교성 여부, 정보 기술의 빠른 변화, 대학내 구성원의 성격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면 지난 '87년부터 '95년까지 뉴욕 주립대의 교양강좌를 개혁할 때, '60, '70년대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교양강좌를 멋지게 구성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다양한 교수 집단의 이해 관계 때문에 자주 타협을 해야만 했다. 교양강좌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학의 이상과 현실에 맞는 교양강좌를 구성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오랜 고심 끝에 구성된 교양강좌 체제를 유지, 존속시키는 일도 매우 힘들었다.

이렇게 새로 고안된 미국 대학의 교양강좌 체제는 이제 정착 단계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은 아직도 고심해서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지금 미국 대학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60, '70년대 문화혁명의 세대라는 점이다. 지금의 중견 교수들, 이제 50, 60대가 된 그 교수들이 그들이 관여했던 문화혁명에 대하여 참회하는 과정이 교양강좌 부활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러나 문화혁명의 영향은 아직도 잔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 대학의 박사학위과정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은 사실 학문적(professional life)으로는 자신의 출세가 현재의 소속 대학과 여러 면에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대학교수의 장래 영달과 승진은, 저서와 논문의 질적 수월성이 아닌 편수에 달려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대학교육 그 자체, 즉 가르치는 일에는 적극적인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카네기 재단에서 규정한 125개의 연구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열정과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을 포함한 미국의 대학교육은 1980년대 이후의 핵심강좌 설치와 교육 수준의 향상을 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미국 대학의 석사학위과정에서 논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장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읽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강좌에는 작문을 포함시키고 있으면서도, 교수들이 자신의 강좌나 시험에서는 논문 쓰기를 부과하거나 장려하지 않는다. 교수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추세가 역력하다. 쟁쟁한 연구대학의 교수들일수록 학생들이 글 한 편 제대로 못 쓴다고 끊임없이 불평하지만, 그들이 바로 학생들이 글을 제대로 못 쓰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러한 교수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미국 대학에서의 시험은 '컴퓨터 채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에세이를 요구하는 시험은 거의 사라졌다. 'OX형 퀴즈 문제'가 아니면 '선다형 문제'를 출제해서 컴퓨터가 내놓은 성적을 그대로 옮겨 평가한다. 따라서 미국 대학생들 가운데 4년간 한 번도 에세이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학생이,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70% 이상이다.

1998년 4월에 카네기 위원회에서는 다시 미국의 연구대학 교수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 '81년부터 '98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교양강좌를 부활시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맹'의 병폐가 그대로 상존한다는 것이다. 학생들 역시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든 강좌를 회피하려는 현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예컨대 사회과학 영역의 한 교양강좌인 '인간과 성'(human sexuality) 과목은 아주 인기가 있다. 학생들이 이 과목으로 사회과학의 한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쉽게 넘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교양강좌도 다른 교육과정처럼 항상 관심을 갖고 다듬지 않는 이상, 명분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 2. 공동체를 해체하는 시장 경제 원리

지금 미국의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시장경제원리'이다. 그 돈을 벌 수 있고, 사회 진출이나 승진 등에 필요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있다. 피닉스 대학(University of Phoenix)이 그 좋은 예이다. 그 대학에서는 지금 컴퓨터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4만 8천 명의 학생들이 학사 학위과정을 밟고 있다. 이런 대학에서는 교수가 아닌 시간강사가 수업을 한다. 기숙사 관리나 청소도 용역회사에 맡긴다. 이런 경향이 번지면 대학의 건물도 필요없게 된다. 참고에 컴퓨터를 들여 놓고 대학을 설립할 수도 있다. 교수와 학생의 면담은 물론 10년, 20년 뒤의 모교에서의 동창회란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런데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이러한 대학이 인기가 있고 번성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의 남서부 지방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점차 다른 지방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학일수록 학위를 남발하고 있다. 이런 대학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대학교육이란 전혀 없다. 시장경제는 무엇보다도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대학들은 '이상'(ideal)이나 '공민 정신'(civic spirit)을 키울 생각이 없으며 공동체 의식도 전혀 없다.

그러나 교육은 어디까지나 공동체(community of learners)를 전제로 한다. 함께 어울려 공부하면서 개인의 자질을 복돋우고 인간다운 소양과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즉각적인 결과나, 이익, 쾌락, 탐욕만을 '선택권'이라는 미명 아래 추구하는 자세는 대학 교육의 모범이 될 수 없다. 교육은 이윤이나 쾌락 추구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위한 투자인 것이다.

## 3. 한국 대학, 연구 중심 학부과정이 필요하다

미국 대학들의 한 특징으로 학부제를 들 수 있다. 학부제와 관련하여 미국 대학에서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전공 이수학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학이 요구하는 전공학점은 전체 이수 학점의 1/3로, 학점수로 보면 교양강좌, 전공강좌, 선택강좌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연계전공(interdis-

ciplinary)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서도 나타나지만, 연계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아주 드물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은 있어도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뉴욕 주립대학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장래의 '직업'(career)을 위해서 연계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선택하는 학생은 학부 학생의 1%도 안 된다.

미국의 학부제는 학문의 갈래에 따른 교수 조직으로 엄연히 학과를 설치하고 있다. 교수의 채용도 물론 학과 단위로 한다. 학과가 주가 되어서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강좌를 개설한다. 미국 대학의 특유한 장점은 학생이 선택할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즉, 전과가 70% 정도는 가능하다. 나머지 30%가 학과를 못 옮기는 이유는 학과 교수들의 수와 학과의 '수용능력' 때문이다.

학과로 대표되는 학문 영역에도 시대에 따라 유행과 인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역사학은 1960년 이전에는 인기였는데, 1970년대에는 크게 위축되었고 요즘은 인기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 현재 뉴욕 주립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은 450명 정도이다. 하버드 대학에도 역사학 관련 학과로서 역사학과, 역사와 문학과, 역사와 과학과 등 세 과가 있고, 여기에 등록된 학생은 거의 600명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그렇지만, 1980년대에는 100명 정도에 불과했다. 학문도 시대적인 조류나 시대의 욕구에 따라 변동한다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리학과도 아주 인기가 높다. 뉴욕 주립대학만 하더라도 교수가 35명이다. 심리학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물론 미국 사회의 복잡성과 거기서 생기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이다. 늘어나는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심리학과는 까다로운 학과 진입제도를 도입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남들할 만한 이유와 성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과 진입을 못하게 만들었다. 범죄대학, 사회복지대학, 경영대학도 그렇다. 1960년 전만 하더라도 경영대는 인기가 없었고, 문리과대학에 우수한 학생이 많았다. 그러나 '70, '80년대에는 사태가 달라졌다. 우수한 학생이 경영대로 몰리자 경영대학의 수도 늘어났다. 학생들이 2학년이 되어 학과에 진입할 때 아주 까다로운 '표준적인 핵심강좌'(standard core curriculum)를 이수하도록 하여 학생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복수의 학과들을 묶는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졸업에 필요한 학점수의 1/3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학부제는 학생들의 선택기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다.

필자가 1991년 버클리 대학의 교육평가 위원이었을 때 그 대학의 3·4학년 학생의 1/3이 전공 없이 방황하고, 학생의 80%가 4년 안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버클리 대학이 '핵심강좌'를 느슨하게 만들고 학부 학생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버클리 대학도 그 비판을 받아들여, 그 후 학부의 교육과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한국에서는 전면적인 학부제 실시를 이른바 대학원중심대학 문제와 관련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중심대학이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미국에는 대학원중심대학이 없다. 존스홉킨스 대학이 독일 대학을 모델로 삼아 연구대학(research university)을 설립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1백 년 전인 1880년대의 일이다. 그때 그 대학이 강조했던 것이 대학원중심, 연구중심이라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존스홉킨스 대학이 대학원중심이라는 개념으로부터 탈피한 것은 1930년대의 일이다. 그러자 존스홉킨스 대학을 본받아 만들어진 여러 연구대학에서도 대학원중심 과정을 없앴다.

지금 한국에서도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원중심대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수는 모두 대학원 교수가 되고 연구는 대학원에서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미국의 대학원은 학부의 전공과 연결되어 있으며 학부의 전공도 지금은 핵심강좌, 즉 교양강좌와 연결되어 있다. 적어도 '80년대 이후의 미국 대학들은 학부에 신입생들이 들어오자마자 연구와 실험실습(lab experience)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대학들이 강조하는 것은 교수들이 학부생들을 끌어안아 함께 연구하는 과정을 배우게끔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수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왜 그런 질문을 하며,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배울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신입생 시절부터 전공 분야에서 이러한 연구 경험을 더욱 배양하여 결국 4학년 졸업 전에 연구논문을 쓰게 된다.

지금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난 1950

년대에 미국 대학을 모델로 삼았던 문리과 대학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중심 학부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국 대학들이 1980년 후부터 하고 있는 일이다. 필자가 뉴욕 주립대학의 학장, 부총장으로서 학부과정의 개혁을 주도했을 때, 그 준거점 중 하나가 바로 과거 1950년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겪은 학생시절의 경험이었다.

학부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명분으로 연구활동을 경험하지 못하게 내버려두는 곳이 아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늦다.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명분 아래 연구를 오직 대학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원에 입학할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는 사고방식에 필자는 분개한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에는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개념이 없다.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는 교수가 꼭 학부 강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적인 모델은 모든 교수들이 학부, 대학원 강좌를 하나씩 맡는 것이다. 교수가 대학원에서만 가르치고 학부를 무시하는 미국의 연구대학은 없다. 미국의 3,500개 대학 가운데 연구대학은 125개, 즉 3%밖에 안 되지만 전체 학부 졸업생의 3분의 1을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개념은 재고되어야 한다. 만일 학부과정이 부실하고 전공과목이 없다면,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위 후보자들은 가르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의 연구대학들은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수 연습(teaching practicum)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이 장래에 좋은 교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다음은 초청 강연회('98. 5.11)에서 강연이 끝난 후, 연사인 김성복 교수와 청중이 나눈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질의·응답 내용》

#### 질문 1

서울대학의 문리대는 1970년대 초반에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대학으로 나누어졌지만, 미국 대학은 여전히 문리과 대학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 경험담부터 시작해서 답변하겠다. 문리과대학은 기초(core) 학문과 교양을 담당하는 주축이다. 내가 1987년 뉴욕 주립대학 학장에 취임했을 때 그 대학의 교양강좌 체제는 엉망이었다. 그것은 각 대학의 이기주의 때문이었다. 사회과학, 인문, 자연과학 대학, 이 세 개 대학이 예산문제 등으로 서로 경쟁한 탓이었다. 그들은 학생들을 자기 대학의 강좌에 많이 등록시켜서 더 많은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 전공에 관련되는 과목조차도 교양과정에 포함시켜 강좌 수를 늘렸던 것이다. 그래서 750개의 강좌가 생기고 교양과정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이의 해결책으로 세 대학의 통합을 궁리해서, 소위 문리과대학을 다시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문리과대학이 주축이 되면, 좋은 핵심강좌를 만들 수 있다. 하버드 칼리지에는 40개 학과, 예일 대학교에는 98개 학과가 문리과대학에 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과가 세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의 세분화는 학문의 전문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

에, 세분된 학과를 굳이 통합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에서는 '사학'이 역사, 역사와 문학, 역사와 자연과학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에서는 왜 이를 나무라는가? 전문화는 오히려 배양해야 할 것이다. 과가 세분되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학과 세분화가 학문적인 고려 및 이유와 관계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마땅히 교정되어야 한다.

문리과 대학은 핵심강좌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가장 좋은 체제라고 생각한다.

#### 질문 2

문리과 대학으로의 통합과 각 과별로의 세분화를 함께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서울대에서 현재 분리되어 있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학과 체제는 어떠한가?

또한 학부 과정부터의 연구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공감하는데, 나도 '언어와 인간'이라는 교양과목을 개발하여, 많은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기말 보고서'(텀 페이퍼)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 대학에서 기말 보고서를 부과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탁월한 교수로 알려진 내 동료 교수는 학생들에게 세 편의 무게있는 기말 보고서를 요구하곤 한다. 그럼에도 연구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좋은 연구 성과를 많이 내었다. 나도 '미국 혁명사'라는 학부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논문을 쓰라고 주문한다. 논문을 쓰려면 책, 신문 등을 읽어야 한다. 독서만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나는 미국 학생들에게 책을 읽으라는 주문을 많이 한다.

사학과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사학과 학문 자체의 본질을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사학과 체제로는 아프리카, 중

동, 라틴 아메리카는 가르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학과가 없다. 프린스턴 대학의 경우 역사와 과학, 역사와 어학, 역사와 문학, 역사 등 역사 관련 학과가 네 개나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나누어져 있지 않다.

**질문 3**

핵심강좌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브라운 대학에 대해서 말해 달라.

브라운 대학은 1970년대 중반에 핵심강좌를 다른 대학들처럼 없앴다. 그러나 다른 대학들이 1980년대에 그것을 부활시킬 때도, 브라운 대학만은 부활시키지 않고 학생들에게 무제한 선택권을 주었다. 그 대학에는 오직 A·B·C 학점만이 있고 낙제를 해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결국 브라운 대학은 부잣집 아들 딸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 돈만 있으면 다닐 수 있는 대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부제를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무제한으로 주는 것은, 시장 경제의 체제에서는 '60~'70년대의 미국 문화혁명 때의 추세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천민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한국 상황에서 만일 학생들에게 무제한 선택권을 준다면 한국의 대학교육의 장래는 막막해질 것이다.

**질문 4**

서울대학교에서 사학과가 3개의 학과로 나누어졌던 것은 교수 정원의 확보를 위해서였다. 미국 대학에서 학과의 교수수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알고 싶다. 다시 말해 분과학문에서 교수수의 적정규모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다.

미국의 경우 교수수의 적정규모는 첫째, 학문 분야 본연의 성격, 둘째, 학생의 수요와 욕구로 결정된다. 한편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순수 재정적인 이유에서 과를 폐지할 수도 있다.

김성복/1956년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후 경북대 교수를 지내다 풀브라이트 교환교수로 도미, 위스콘신 대학을 거쳐 미시간 대학에서 '미국 초기사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윌리엄 메리 대학 교수와 일리노이 대학(삼페인)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Albany)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1991년 U. C. 버클리의 교육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뉴욕 주립대학 교육개혁 프로그램에 다년간 참여하여 대학원 교육개혁 기획팀에서 예산 및 기획, 교육위원장을 지냈다. 저서인 『식민지 시대 뉴욕 지방의 지주와 소작인』으로 미국사 연구회에서 학술상을 받았고, 『미국혁명의 비극』(1993)이라는 논저는 미국 사학계의 기존의 통설을 뒤집은 명저로서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 혁명사와 우리나라의 해방 50년사를 집필중이다.